



〈야회복을 입은 메트 고갱〉-1884년 캔버스에 유채, 65*54, 오슬로 국립미술관 소장

- 꿈을 실현 시킨 폴 고갱 -
박재현 작가

꿈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만 노력보다 더 두려운 것은 현실의 안락함을 버려야한다는 것이다. 고갱은 화가라는 새로운 인생에 과감하게 도전하기 위해 현실을 과감하게 벗어 던졌다.

고갱은 선원으로 활동하다가 후견인이었던 어머니의 친구 귀스타브 아로자의 도움으로 보수가 좋은 주식거래소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다. 상류 사회에 진입한 고갱은 25살 때 23살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 메트 소피 가트를 만났다.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고갱은 어린 시절부터 행복한 가정에 대한 동경이 컸다.

고갱은 아이가 태어나자 가장으로 책임을 다해 부르주아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다. 주식 거래인은 활동하면서 고갱은 다른 중산층 남자들처럼 매춘부나 도박에 빠져들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취미로 조금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마추어로서 그림을 그리면서 고갱은 점점 예술에 대해 열정을 아내 몰래 키워나간다.

성실하게 주식 거래인으로 생활하고 있던 고갱은 1882년 프랑스 주식 시장의 붕괴로 인해 해고 된다. 실업자가 된 고갱은 전업화가 될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고갱의 결정에는 화가로서의 자신의 천재성이 빠른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의 성공에 따른 행운을 믿은 것이다.

직업화가가 되겠다는 고갱의 선택에 아내 메트는 반대한다. 메트는 고갱의 재능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잘못된 소망이라고 생각했다. 고갱이 예술적 재능 보다는 자신과 아이들의 삶에 충실해줄기를 바랬던 것이다.

고갱이 선택한 길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아내의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 〈야회복을 입은 메트 고갱〉이다. 고갱이 화가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전에 제작된 작품이다.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메트는 시선을 외면한 채 의자에 앉아 있다. 틀어 올린 머리와 목걸이 그리고 장갑과 부채는 부르주아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배경의 장식이 많은 거울 역시 부르주아 가정을 나타낸다.

붉은 혈색과 달리 꼭 다문 입술은 고집이 세고 냉정한 그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으며 외면하고 있는 시선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고갱에 대한 마음을 나타낸다.

고갱은 이 작품에서 전형적인 아름다운 부르주아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고갱은 메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가의 길을 가지만 그림이 하나도 팔리지 않아 생계가 곤란해지기 시작한다. 가난한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메트는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 코펜하겐으로 돌아간다. 고갱은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그녀를 쫓아간다. 코펜하겐에서 고갱은 가정이나 예술적으로



〈이아 오라나 마리아〉-1891~1892년, 캔버스에 유채, 114*89,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나 경제적으로나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면서도 고갱은 그림에 대한 열정은 숨기지 못한다.

고갱은 처갓집 식구들에게 쫓겨나 파리로 돌아온다. 그는 가정을 버리고 그녀는 고갱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의 기대를 저버린다. 그 이후 고갱은 가족을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 두 사람은 1894년 돈 때문에 싸울 때 까지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

고갱은 예술적 확신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져 화가로 길을 가고 있지만 여전히 재능은 인정받지를 았

았다. 암담한 현실에 고갱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찾아 떠나고 싶었다. 그는 허영의 도시 파리를 떠나 지상의 낙원이라고 생각한 남태평양 타이티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고갱이 타이티를 선택한 것은 피에르 로티가 쓴 <로티의 결혼> 때문이었다. 피에르 로티는 열대 천국을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상적인 장소로 묘사했다.

고갱은 1891년 긴 항해 끝에 타이티에 도착한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타이티는 고갱이 생각했던 낙원은 아니었지만 아직도 원시성을 가지고 있었다.

정령과 통제되지 않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었던 타이티의 원주민들은 고갱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고갱을 가장 기쁘게 만들었다. 원주민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고갱은 그들의 문화와 원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타이티의 경이로운 풍경, 벌거벗은 여인들의 몸,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고갱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고갱은 그림에 몰두하면서도 영국계 혼혈 태후라와 동거를 한다. 그녀와의 동거로 인해 고갱의 그림은 관능적 충만함으로 넘쳐흘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언어에 대해 몰랐다. 대화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서로를 탐구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원주민의 언어와 관습을 배우기 위해 오두막집을 얻어 생활하던 그곳을 태후라가 싫어했기 때문에 고갱은 그녀를 떠나보낸다.

고갱은 원주민들의 생활에 매료되어 그의 타이티 작품 대부분은 일체의 인공적인 문화가 없이 생활하고 있던 원주민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다.

원주민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고갱은 그들의 문화와 원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타이티의 경이로운 풍경, 벌거벗은 여인의 몸,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고갱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하지만 고갱은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타이티에서 실망한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타이티는 고갱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유럽문화가 확산되었다.

고갱은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타이티에서 실망을 해 종교적인 색채를 띤 <이아 오라나 마리아>를 제작한다. 이 작품의 제목인 '이아 오라나 마리아'는 타이티 말로서 '마리아여 우리는 당신께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뜻이다.

다양한 색채가 어울려져 화려하게 느껴지고 있는 이 작품 속에서 아이를 어깨에 메고 있는 여인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두 여인들을 묘사했다. 아이를 어깨에 멘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고갱은 이 작품에 대해 '.....노란 날개를 단 천사가 두 사람의 타이티 여자에게 마리아와 예수를 가

리키고 있는 것을 그린 거야. 마리아도 예수도 역시 타이티 사람이지. '라고 편지를 썼던 것처럼 그는 이 작품을 그리면서 의식적으로 종교적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다.

고갱은 타이티에 실망해 파리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갱은 타이티에서 아무런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갈 경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간신히 여행 경비를 마련한 고갱은 1893년 프랑스에 돌아온다. 한편으로 고갱은 자신의 재능이 그대로 녹아 있는 타이티를 소재로 한 그림들이 팔릴 것으로 생각했다.

고갱은 인상과 후원자였던 화상에서 최초로 개인전을 열어달라고 부탁한다. 1895년 파리 뒤랑 뒤엘 화랑에서 고갱의 44점 작품이 선보였다. 하지만 참담한 실패였다. 대중들이나 비평가들은 냉담했고 작품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

고갱은 실패를 만회하고자 작업실을 자기 작품을 선전하는 곳으로 꾸몄다. 작업실은 선정적인 그림들과 타이티에서 가져온 조각과 직물로 가득 한 이국적인 공간이었다. 출입구에는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한다.'라는 자극적인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가 자극적인 문구를 써 넣은 것은 혼혈인이었던 안나와 동거 중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문구로 인해 고갱은 파리 사교계에서 외면을 받는다.

고갱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파리에 실망해 술과 마약에 의존하게 된다. 그의 망가져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안나는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는다. 안나는 고갱의 작업실에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

결국 파리에서 빈털터리가 된 고갱은 마지막 종착지 타이티로 돌아온다. 타이티에서 고갱은 술과 자유 분방한 생활로 얻은 매독을 이기지 못해 건강이 악화된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하지만 예술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있었던 고갱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작품을 위해 온 정열을 쏟아 부었다.

폴 고갱(1848~1903)의 타이티 작품 대부분은 일체의 인공적인 문화가 없이 생활하고 있던 원주민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고갱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생전에 그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고갱의 원시주의는 피카소나 마티스 등 후대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재정과 지방세”는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교양지로서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세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논문

지방재정·세제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 우수사례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세제활동이나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수필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세제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이야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략기획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 02)3274-2013
Fax : 02)3274-2009
E-mail : lsy1296@klfa.or.kr

“지방재정과 지방세”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

2011년 6월호
(통권 제 42 호)

- 발행인** 이상복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편집인 이주석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편집위원 곽채기 | 동국대학교 교수
김대영 | 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규 | 중앙대학교 교수
손희준 | 칭주대학교 교수
안경봉 | 국민대학교 교수
유경문 | 서경대학교 교수
유태현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삼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만수 | 한양대학교 교수
최진혁 | 충남대학교 교수
(이상 가나다순)
손육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이사
조봉업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이우종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장
변성완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구본근 |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장
이보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전동훈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진명기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발행일 2011년 6월 일
디자인·인쇄 사회문화사 (02-2263-0523)